

에콰도르 코코아 산업, 엘니뇨로 피해 우려…업계는 대응 조치로 영향 최소화 기대

(Ecuador cocoa to take El Niño hit as industry bets on mitigation measures)

에콰도르 정부 전망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에콰도르의 코코아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준비해 온 대응 조치가 코코아의 품질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말 전국에 적색경보를 발령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정부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에콰도르 전역의 약 310만 헥타르(770만 에이커)가 강우 및 산사태로 인한 중·고위험 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라보뱅크, 브라질 2026/27년 대두 생산 및 수출량 감소 전망

(Brazil's soy production, exports to fall in 2026/27, says Rabobank)

라보뱅크(Rabobank)는 수요일,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농가들이 높은 차입 비용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는 가운데, 2026/27년 대두 생산량과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대두 수요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1억 7,800만 톤으로 전망됐다. 이는 라보뱅크가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지만, 전년 대비 400만 톤 감소한 수준이다.

출처: Thomson Reuters